

예배 및 모임안내

2020-09호 2020년 03월 01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교육관 7번 교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일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주일 예배 봉사위원

	03. 08	03. 15	03. 22
대 표 기 도	김효종 집사	한명희 집사	박재기 집사
성 경 봉 독	김효종 집사	한명희 집사	박재기 집사
헌 금 위 원	한명희 집사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안 내 위 원	이수현 집사	이수현 집사	이수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영의 양식으로 삽시다(삼하10~24장, 출1~6장)
2. 사순절 (2월26일~4월9일) - 말씀과 기도로 경건생활에 힘쓰세요.
3. 정기 제직회 - 다음 주일(8일)은 친교실 정리 후 제직회로 모입니다.
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각별히 조심하세요.
5. 나눔의 시간 - 여전도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우동정

생일	박혜리 자매(7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헌미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기도와 나눔에 힘쓰고 각 기관, 구역이 활성화 되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1. 사순절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김영희 시무권사
- *찬 송 Gemeindelied144장..... 다같이
- *성시교독 Wechsellesung교독문 124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266장..... 다같이
- 기 도 Gebet정용현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요 6 : 53 - 59(신p154).....노지민 형제
(Johannes 6:53-59)
- 설 교 Predigt**성찬이 주는 교훈**.....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227장..... 다같이
- 성찬예식 Abendmahl막14:22~26, 228장(2,4절).....담임목사
- 현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314장(1,2절).....이수현 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55장.....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친교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어떤 예술가는 폐기물을 수집해서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 냅니다. 그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쓸모 없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쓸모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유다가 말씀을 거부한 결과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자는 멸망을 받음으로 말씀을 성취하는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악하게 사용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재앙입니다. 유다는 가장 비참한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살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뤄집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불명예스러운 자가 아리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존귀한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멸망 당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구원 받음으로 영광을 돌리느냐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멸망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심판입니다.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종으로 오신 하나님 /김서택 목사
(대구 동부교회 시무)

* 사랑만큼 사람을 강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 John Wesley -